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2019년 초·중 치아사랑 공모전

1. 취 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관리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치아사랑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2. 작품내용

- 1)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내용
- 2) 구강질환의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
- 3) 치아건강식품을 섭취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내용
- 4) 구강보건에 대한 체험담 및 생활수기 내용

3. 응모대상 및 작품규격

응모부문	응모대상	작품규격
그림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 가로 46cm, 세로 31cm(4절지)의 쉐트지 - 색도 자유(크레파스, 물감 등 사용가능)
글짓기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 200자 원고지 8매 내외
포스터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 가로 38cm, 세로 53cm(4절지)의 쉐트지

4. 세부계획

- 1) 접수마감 : 2019년 5월 17일(금), 오후4시(당일소인 유효)
- 2) 접수 및 문의처 :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062-675-6735~6)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48(쌍촌동) 3층 (우편번호 : 61993)

3) 심사발표 : 2019년 5월 28일(화)

-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 <http://www.gjda.or.kr> 공지

4) 시상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오후7시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301-306호

5. 주최 및 후원

1) 주 최 :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2) 후 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한구강보건협회 광주지부

6. 기타사항

1) 참가비는 없으며 출품자는 심사위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표절시비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본회에 있습니다.

7. 시상내역

1) 초등부(그림)

시상부문	수상인원	시 상
대상	1	광주광역시교육감상외 부상
금상	1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상외 부상
은상	2	대한구강보건협회 광주지부장상외 부상
동상	3	광주광역시치과의회장상외 부상
장려상	다수	광주광역시치과의회장상외 부상

2) 초등부(글짓기)

시상부문	수상인원	시 상
대상	1	광주광역시장상외 부상
금상	1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상외 부상
은상	2	대한구강보건협회 광주지부장상외 부상
동상	3	광주광역시치과의회장상외 부상
장려상	다수	광주광역시치과의회장상외 부상

3) 중등부(글짓기)

시상부문	수상인원	시 상
대상	1	광주광역시교육감상외 부상
금상	1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상외 부상
은상	2	대한구강보건협회 광주지부장상외 부상
동상	3	광주광역시치과의회회장상외 부상
장려상	다수	광주광역시치과의회회장상외 부상

4) 초등부, 중등부(포스터)

시상부문	수상인원	시 상
대상	1	광주광역시장상외 부상
금상	1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상외 부상
은상	2	대한구강보건협회 광주지부장상외 부상
동상	3	광주광역시치과의회회장상외 부상
장려상	다수	광주광역시치과의회회장상외 부상

※ 시상 내역은 출품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2019년 초·중 치아사랑 공모전 수상작품전시회

- 1) 일 시 : 2019년 5월 30일(목) ~ 6월 24일(월)
- 2) 장 소 :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로비 /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로비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 기타장소
- 3) 기 타 :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합니다.

9. 2018 수상작품소개

1)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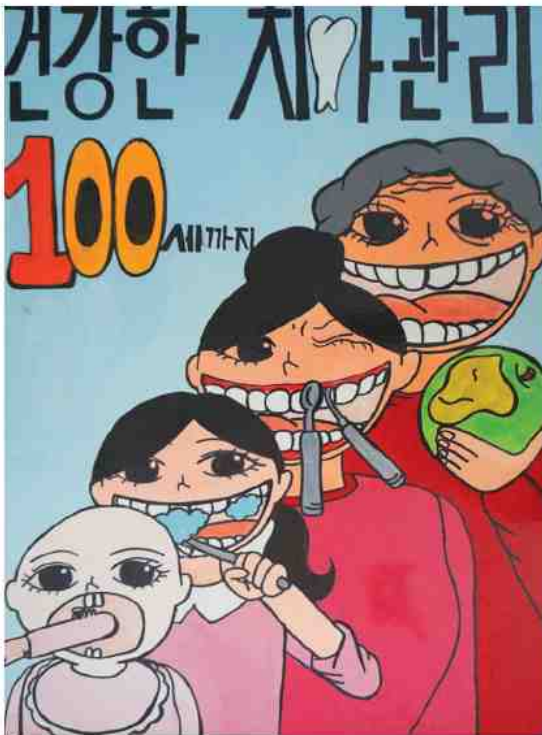


대상 새별초등학교 6-2 정은채



금상 신용초등학교 2-3 김한미르

2) 포스터



대상 광주상무초등학교 6-3 정원현



금상 장덕초등학교 6-4 박교원

3) 글짓기



열 살 치아가 여든까지 간다!

은남중학교
2-5 천연수

흔히들 치아는 인체의 5부 중에 하나라고들 하며, 구강건강은 살아감에 있어 노년기까지 젊고, 듣고, 맛보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치아를 위해서는 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강건강이라고하면 충치처럼 구강 내부의 질환만을 주로 생각합니다. 물론 치아질환도 발생하게 되면 치료과정도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에서 떠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구강질환과 그 속의 세균은 절대 구강 내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생물과의 공존'이라는 책에 의하면 궤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혀에서 여러 구강세균들이 발견되는가 하면, 사산한 산모의 구강과 태반 그리고 태아에서 잇몸 세균인 루소박테리움의 발견된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의 90% 뇌에서 치주질환 세균인 트레포네마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강건강을 위해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충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기관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강건강을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양치질'입니다. 저도 양치질 한다보면 가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부분만 계속 닦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양치는 하루 3번, 9분씩 해야 하며, 세균의 주식지인 잇몸주머니를 닦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부드럽고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더불어 정기검진을 받으러 치과를 가볍게 자주 다녀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구강 내 항균 작용을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도 출시되었다고 하니 참고 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통해 건강인이 되면 좋은 점이 많은데요, 먼저 건강인은 첫인상을 깔끔하게 보일 수 있고, 웃을 때에도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실은 어렸을 때 돌출형 부정교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릴 적에 알아차려서 교정을 통해 건강인이 되었는데요, 교정을 할 때 입맛이 없어 살도 빠지고 면역력도 약화되어 간병치료를 꽤 했는데, 그 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교정한 결과 지금은 사람들이 웃을 때 깨끗한 치아와 입매가 다들 매력 포인트라고 말해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백세시대라서 노년기까지 영구치를 사용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삶을 살아감에 있어 구강건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 살 정도가 되면 웬만한 유치는 모두 영구치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영구치를 죽을 때까지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인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